

말기신부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추정: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한 Pilot Study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통계연구실¹, 서울대학교 병원², 경북대학교 병원³

김명희¹ · 강민진¹ · 이정표² · 김연수² · 김용림³ · 김 호¹

Identification of Socioeconomic Factors for ESRD and Estimation of Related Burdens

Myoung-Hee Kim¹, Min-Jin Kang¹, Jung-Pyo Lee², Yon-Su Kim², Yong-Lim Kim³, Ho Kim¹

Lab of Biostatistics¹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²,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³

연구배경: 말기신부전으로 인한 사회적부담은 미국의 경우 메디케어에 등록된 환자의 경우 US \$67,000이고 (2008년 기준), 해마다 연간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투석으로 인한 생산성손실을 감안한 사회경제적 부담연구가 차츰 진행되고 있는 외국현실에 비해 아시아 및 한국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말기신부전환자의 다기관 전향적 연구’의 하나로 진행된 pilot study로서 말기신부전 환자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조사하여 투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목적: 말기신부전 임상연구센터에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을 파악하여 삶의 질 분석 및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한 정량적 연구를 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혈액투석 구환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말기신부전 임상연구센터에 등록된 3차 병원 중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여 서울과 대구2곳의 병원 1개씩을 선정,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2009년 8월에서 9월에 걸쳐 심층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 유효표본은 서울S병원 39명, 대구 K병원 42명이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이외에 추가적인 설문지를 통해 개인수입, 직접 비의료비용 그리고 간접비 항목으로서 투석으로 인한 직업변동, 투석에의 소요시간, 교통수단 등이 훈련된 조사원에 의해 질문되어졌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분포를 보면, 먼저 연령에서 서울S병원 평균연령이 63.67, 대구 K병원이 59.45로 4세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분포는 두 병원 모두에서 남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경제적 분포를 보면, 교육수준에서 지역간 차이를 보였고, 현재의 월평균 개인소득, 투석전의 개인소득, 직접 비의료비 (투석 외 제반비용)의 항목에서 두 병원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value: 0.008965, 0.01969 and 0.005163 각각). 투석으로 인한 직업변경은 서울 S병원 33.33%, 대구 K병원이 50%로 나타났다. 한달 평균 투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S병원 84.57 (SD 15.79), K병원 86.23 (SD:27.30) 로 두 지역간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투석으로 인한 직업변경이 된 사람들만을 선정하여 투석이전과 이후의 수입변화를 추계한 결과 병원 K에서는 52.46%의 수입감소율을, 병원 S에서는 17.90%의 수입감소율을 보였다.

결론: 두 개 지역의 3차병원 두 곳을 선정하여 혈액투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지역간 차이를 현저히 보였으며 사회경제적인 수준 정도에 따라 말기신부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Key Words: 혈액투석, 사회경제적, 비용
Hemodialysis, Socioeconomic, Cost